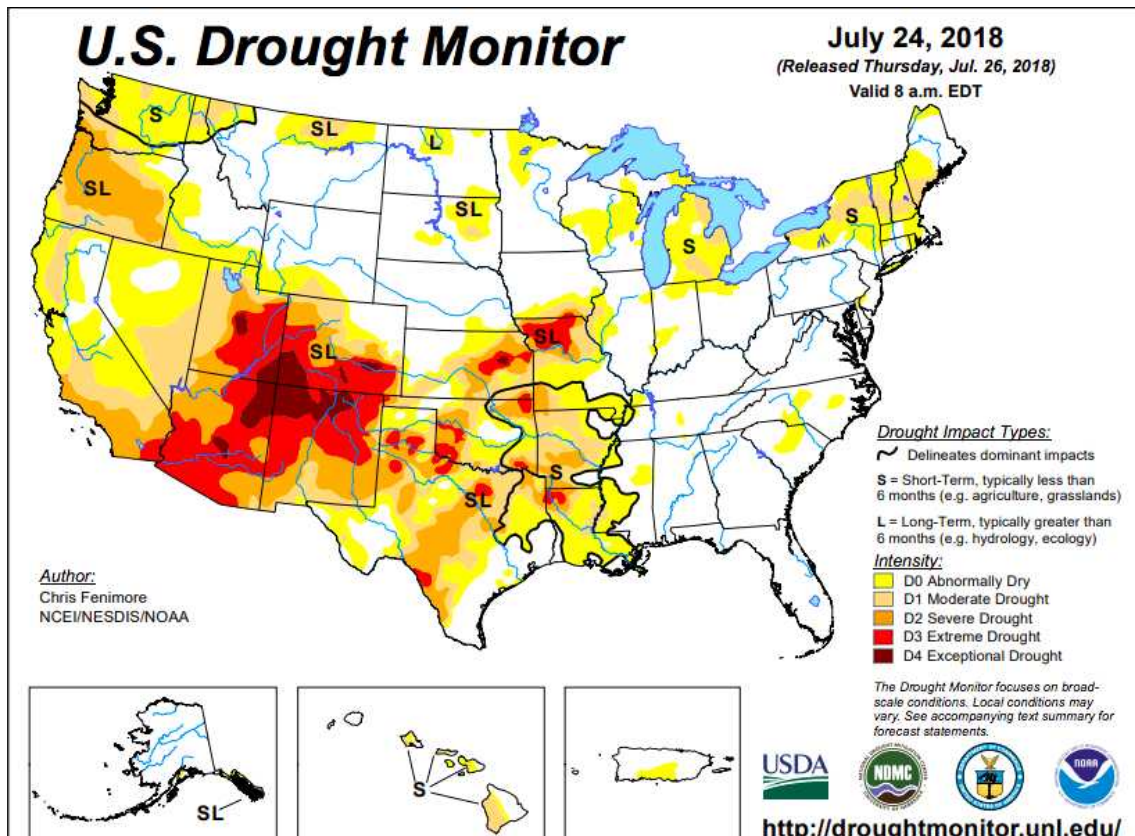


7월 31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(Volume 105, No. 31)

□ 미국 기후 현황(7/22~7/28)

중남부 등 주요 옥수수 재배지역에서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였지만, 텍사스, 태평양 연안 지역, 남서부 등에서는 매우 더운 날씨를 보였다. 서부 전역에서는 평균기온이 평년에 비해 최소 10°F 이상 높았다. 7월의 마지막 한 주 동안 알래스카를 포함한 서부 곳곳에서 100여 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다. 로키산맥 중부와 남부 일대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기도 했고,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지역에서도 4~8인치 내외의 많은 비가 내렸다. 북동부 일대에 내린 비로 이들 지역에서 기승을 부렸던 가뭄은 상당부분 해소가 되었다.



□ 농업 현황 요약(7/23~7/29)

아리조나, 콜로라도, 뉴 멕시코, 와이오밍 등에서는 비가 내렸다. 한편, 서부 일대와 남서부, 뉴 잉글랜드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최소 3°F 이상 높았다. 반면에 중서부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조금 낮았다.

□ 세계 기후 현황(7/22~7/28)

■ 유럽: 남동부 일대에서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렸고, 북부 일대에서는 2~10mm 내외의 적은 비가 내렸다. 겨울작물 파종을 앞두고 있는 폴란드의 경우, 토양 수분량이 평년의 1~2배에 이르고 있는 반면, 잉글랜드 남동부, 독일 등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. 잉글랜드 남동부의 경우 지난 60일간의 누적 강우량이 평년의 25%에 그치고 있고, 독일과 벨기에, 네덜란드 등에서는 지난 60일간의 누적 강우량이 평년의 50%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. 특히 잉글랜드 남동부의 경우 낮 최고기온이 30°C 초반까지 오르고 있고, 북서부 유럽 일대에서도 낮 최고기온이 37°C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.

■ 구소련(서부): 몰도바에서부터 우크라이나 북부, 러시아 남서부 등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2~5°C 정도 높은 더운 날씨를 보였지만, 천둥번개를 동반한 10~90mm 내외의 비가 내려 옥수수 등의 생육상황은 양호한 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. 우크라이나 남동부 지역에서도 최근 내린 많은 비 덕분에 초여름 동안 기승을 부렸던 가뭄을 해소해 주었고, 작물들의 생육상황도 양호한 편이다.

■ 동아시아: Heilongjiang과 Jilin 서부 등에서는 25~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, 내몽고와 Liaonin에서도 비슷한 양의 비가 내렸다. 한편, 중국 북동부 일대와 Hubei 등에서는 태풍의 영향으로 25~10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. 중국 남부 및 남동부 지역에서는 지난 60일간의 누적 강우량이 평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, 가뭄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. 한반도와 일본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.

■ 호주: New South Wales 북부와 Queensland 남부 지역에서는 5mm 미만의 적은 비가 내렸다. 이들 지역에서는 추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수확량 전망은 계속해서 어두워질 것으로 보인다. 반면, 남동부 일대에서는 10~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. 서호주에서도 10~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작물들의 생육상황은 양호한 편이다.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에 비해 1~3°C 정도 높았고, 남동부 일부 지역에서는 밤 동안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기도 했다.

■ 아르헨티나: La Pampa, Buenos Aires, Cordoba, Santa Fe, Entre Rio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~2°C 정도 높은 날씨를 보였다. Salta, Santiago del Estero 동부 및 Formosa 등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20°C 가까이 오르고 있고,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10°C 전후에서 머물렀다. 아르헨티나 농림부 보고서에 따르면, 7월 26일 기준 밀 파종률은 94%인



것으로 나타났고, Buenos Aires의 경우 밀 파종률은 83%를 기록했다. 한편, 같은 기간 기준 옥수수의 수확률은 90%인 것으로 조사되었다.

■ 브라질: Parara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이 30°C 가까이 오르는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다. Parana 주정부 보고서에 따르면, 7월 23일 기준 밀의 개화률은 31%였다. 반면, Rio Grande do Sul, Santa Catarina 등에서는 10~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, 평년에 비해 서늘한 날씨를 보였다. 동부 해안지역에서는 10~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. Mato Grosso의 7월 27일 기준 옥수수 수확률은 80%였고, 면화의 수확률은 15%를 기록했다.